

이코노&비즈 피플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효성,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금 전달

“전기사고 줄이기, 관련 법령 정비가 첫 걸음”

“우리 국민의 전기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은 후진국 수준과 다를 없습니...

안전공사→전북, 한전→나주

호남 전력산업 메카 육성 호기

지역인재 10% 채용 상생 경영



학업제가 몰려있어 전기사고에 대해 그 어떤 곳보다 민감한 편이라며 “단 1초의 정전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길 수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전기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호남지역과 더욱 특별한 지역연계 협력을 펼칠 것이라는 계획도 내비쳤다.

이 사장은 “인재 채용시 10%는 전북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구내 식당의 음식재료를 전북지역 농수산물로 구매할 것”이라며 “최근 추진중인 무선충전 자동차 사업은 지역의 산학연 기관과 함께 연구성과를 내도록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전북엔 전기안전공사가 이전하고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전을 비롯, 다양한 전기 관련 기관이 이전한다”며 “두 혁신도시 관련 기관의 협업이 잘 이뤄진다면 호남은 전력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21일 새 사옥을 건립한 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1974년 전남지부로 출범, 1984년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 시대를 거쳐 30년 만에 서구 농성동 서구청 옆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 새 사옥은 대지면적 2439㎡, 건물 연면적 2295㎡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효성이 22일 장애인 의료재활 전문기관인 푸르메재단에 저소득층 장애아동·청소년 의료재활 및 가족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은 후 효과적으로 재활이 이뤄질 수 있지만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재활치료를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교육비로도 지원된다.

효성은 지난 5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인 ‘킴브릿지’에 전산자재 약 800대를 기증했으며, 지난해는 서울 중산동에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 효성 1호점’을 설립했다. /임동률기자 exian@

“올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대기업 절반...통상임금 확대 요구 가장 부담

국내 대기업 절반가량은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 때문에 올 해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6.3%가 올 해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40.7%는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했고, 비교적 원만하다는 대답은 13.0%에 그쳤다.

올해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운 이유로는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77.2%)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높은 임금인상·복지수준 확대 요구(15.8%),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요구(14.0%), 정년 연장 조기 도입 요구(12.3%) 등이 뒤를 이었다.

임단협 타결까지 얼마나 걸릴 것

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3개월 이상

이 51.2%로 절반을 넘었고, 1~2개월(29.3%), 예측불가능(19.5%) 순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60.6%가 3개월 이상이라고 답한 반면 무노조 기업은 이 비율이 20.7%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전경련 고용조사팀 이철행 팀장은 “경기침체와 원화강세로 수출에 경고등이 켜지는 등 우리 기업들이 내·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처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하되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성과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이뤄진 이번 조사의 표본 수는 123개로 이 가운데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은 94개, 노조가 없는 기업은 29개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고용 나서달라” 최경환 부총리 경제 5단체장 간담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재계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하타인’을 가동하고 재계와의 정례 간담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가계소득 약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민국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일군 저력이 있다”며 “재계와 정부가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 부총리는 재계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하타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재계는 새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우려도 드러났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사내 유보금 과세는 정책적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공건설 발주에 기업 사회적 책임 가점제

고용노동부 내달부터 첫 적용...고용·안전 실적 반영

다음 달부터 일부 공공건설 발주 때 고용·안전 관련 실적을 지수로 산정한 사회적 책임 가점 제도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책임지수로 가점 1점을 반영, 다음 달 18일 낙찰자가 확정되는 LH수원호매실 아파트 공사에 첫 적용 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반영해 업체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개 사업에 시범 적용된다. 사회적책임지수는 고용 0.4점, 안전 0.

4점, 공정거래 0.2점 등 총 1점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 분야는 피보험자 증감률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안전분야는 사망·만인율 등 항목이 반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www.ei.go.kr)에 LH 아파트 건설공사 임철 참가 자격을 갖춘 79개 건설업체의 고용지수를 공개하고 31일 최종 점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낮은 사회보험 가입,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생활게시판' (Life Noticeboard)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such as '동양철학원', '토산철학원', '두걸음직업소개소', '광남기업', '등촌', '김용만국수집', '떡임이아구찜', '광주화랑', '우먼로드', '고전방', '이가회관', 'TV스토리', '호선갤러리', '우리웃빛고을', '남원추어탕', '국보공예', '커피힐릭', '규방', '박당화랑', '석당화랑', '신신예술의집', and '미정'.